

민주당 순천 야권연대 후보 본격 지원

박지원·천정배·한명숙 22~23일 지원 유세 나서

“총선·대선 승리 위해 필요”… 선거 막판 변수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아관 단일 후보인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천정배 최고위원과 한명숙 전 총리도 2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함께 순천 시내에서 김선동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며, 김영록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김후보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강원도지사 선거 지원 등에 올인한데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순천 지원에 나서면서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23일 순천을 방문, 김선동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내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거 직전까지 야권연대와 연합을 주장하였다”며 “내년 총선과 대

박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 지원에 나서 기로 결정함에 따라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야관단일후보 지원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박원내대표의 야관단일후보 지원에 따라 DJ의 상징성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홍길씨에 이어 20일에는 김홍업 전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조준용 후

보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 막판 민주당의 입장과 DJ의 상징성을 놓고 야관단일 후보인 김선동 민주노동당 후보와 무소속 조준용 후보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결국 당내외의 거듭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순천 지원유세에 나선 것 같다”며 “박원내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막판 총공세로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판은 더욱 요동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동우·최권일 기자 tuim@

목포 무소속 후보 가족

박지원 부인에 폭언

목포시의원 재선기에 출마한 민주당 최기동 후보 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후보 가족들을 선거 운동방해 혐의 등으로 목포경찰서와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무소속 후보 가족들이 목포만 호동에서 선거 운동을 펼친 박지원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다가와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자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동우기자 tuim@



순천 보선 TV합동 토론회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들은 21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KBS순천방송국 TV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kwangju.co.kr

■ 4·27 재보선 현장

대학교수 333명 허상만 지지

전남대 교수 112명과 순천대 교수 109명 등 광·전남지역 7개 대학 교수 333명이 21일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허상만 후보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서에서 “순천은 국회의원, 시장, 시도의원들 간의 반복과 갈등으로 인해 시민의 불신과 냉소가 극에 달해 있고, 이러한 현실

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량있고 깨끗한 큰 어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허 후보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고, 순천대 총장으로 지역 교육 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농림부 장관으로 농촌 발전을 실현했다”며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국회에 가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 유권자 28만6084명

전남도 선관위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전남지

역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28만 6084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부재자 신고인은 6386명이다.

이는 지난 8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이후 선거권자의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과 직권수정을 거쳐 20일 확정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만 46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군 재선거에는 5만 5059명, 목포시의원 재선거(라 선거구) 2만 6343명, 전남도의원 보궐선거(화순군 제2선 구구) 1만 7478명 순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실재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가능·연령무관)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 ▶ 대 상 :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 ▶ 금 액 : 500만원~8,000만원
- ▶ 금 리 : 년 5%~
- 대출과다나 연체로 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개인회생, 신용회복 지원이신 분 가능

직장인 대출

- ▶ 금 액 : 500만원~5,000만원
- ▶ 금 리 : 년 9%~
- ▶ 대 상 : 3개월 이상 근무자 누구나 가능
(신용불량자 제외)

하나 1544-0936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09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00-13(중개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대부증개업 등록기간: 대구 광역시
대표자 : 백영학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5.5%~13%(연체금리 18%~22%) 제2금융권이자율최저 11.9%~33%(연체금리 22%~44%) 제3금융권이자율최저 33.3%~44%(연체금리 44%)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주방 A/S전문 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경

타 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양동 1
육교 행단보도
전대사거리
백두산입구
전대평원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헬관과 호르몬제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설크방법 및 제품특징

- ◎ 평소에 별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류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 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별기가 질립니다.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피말리는 초접전… 여야 신경전

재보선 D-5… 지지층 투표 독려 속 ‘선거개입’ 공방

4·27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으나 여야 간 피 말리는 초접전이 계속되면

서 21일 여야는 모두 애를 태우며 선구구별로 총력 지원에 나섰다.

김원의 경우 한나라당 업기영 후보가, 경남 김해읍은 애권 단일후보인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각각 앞선 상황에서 민주당 최문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추격전이 거셌다. 특히 재보선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한나라당 강재석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지지층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재보선 승패를 가름할 막판 변수인 지지층에

각각 나섰다.

여야는 이날 서로에게 선거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의원 86명이 종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재보선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조퇴 허용을 촉구로 한 대에 선거 압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투표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등 관권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며 “한나라당도 투표율을 높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행동을 오도하지 말고 투표율을 높이는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분당·강원 재보선 격전지 ‘아이폰 유세 동영상’ 경쟁

4·27 재보선 막판 아이폰을 활용한 유세가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2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방송 웹사이트에는 한나라당 강재석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최문순 후보 등의 선거 유세 동영상이 경쟁적으로 올라와 있다.

스마트폰 방송은 고가의 방송장비가 없어도 아이폰이나 웹캠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자체 방송을 할 수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 북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중계할 수 있어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유권자와 소통해야 하는 선거 후보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손학규 후보는 아이폰 유세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지난 12월부터 20일까지 총 22건의 동영상과 함께 선거운동과 선거 노래에 맞춰 춤을 추거나 지하철에서 시민과 악수하는 등 다양한 유세 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 후보도 지난 14일 하루 동안

아이폰으로만 총 4건의 영상을 올렸으며 이 가운데 빨간 셔츠 차림에 선글라스를 켜고 트로트 가요를 부르는 흥준표 의원 지원 유세 동영상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았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업기영 후보와 경쟁하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도 아이폰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이폰 유세는 짧은 총에 투표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

친이게 모임서 선거운동 지침 전달

이재오 장관 선거법 위반 논란

경실련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친이명박) 게 모임에 따르면 ‘공무원’의원들 35명과 만찬을 하면서 “선거 작전을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운동 지침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22일 오전에도 한라디오 인터뷰에서 “친박계나 비주류 의원들도 좀 더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실련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보궐 선거지역에서의 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이를 국회의원들에게 수행할 것을 지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한 명백한 선거 운동으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거로 22일 이 장관은 선관위에 조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 장관이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이 장관이 한나라당 의원을 만난 것은 당내에서 만난 것이라 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주당이 고발을 한다면 검토해봐야겠지만 법은 아닌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